

청소년의 또래폭력 귀인양식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삽화연구*

이 상 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또래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폭력행위의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폭력을 묘사하는 삽화를 제시한 후, 청소년들의 귀인 및 도덕적 판단을 알아보았다. 확인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상호적 징벌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폭력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폭력행사의 책임을 돌리는 정당화의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가해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될 경우 다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은 폭력행위의 결과에 근거해 책임소재를 묻기보다는 폭력과 관련된 맥락적 상황에 의거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 본 연구는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비평을 해준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다. 이는 또래폭력의 관찰자인 일반학생들이 방관 또는 피해학생의 비난이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 또래폭력을 지속시키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할 때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수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전략으로, 일방적인 처벌보다는 양자간의 화해와 협상을 습득할 수 있는 학급단위의 갈등해결프로그램 실시, 폭력의 '첫단추'가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조기개입, 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에 도전하는 접근방법,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에게 행동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왜곡된 도덕적 판단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ART(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와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문제 제기

잘못된 행위의 교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행위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또래폭력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폭력행위의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알아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Lockwood(1997)에 따르면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학생이 폭력을 사용하게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또래간의 폭력 중 70% 가량은 폭력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비롯되며, 또래간의 폭력을 야기시키는 폭력의 '첫 단추'(opening move)는 주로 또래폭력 당사간의 공격적인 접촉이라고 보고된다(Lockwood, 1997). 즉, 또래간의 사소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별명부르기, 놀림, 조롱, 욕설과 같은 시비거리가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1) 또래괴롭힘, 또래따돌림과 같은 또래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폭력관련 청소년간의 힘의 관계에 상관없이 또래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또래폭력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폭력유형은 놀림, 조롱, 욕설, 위협, 협박 등으로 심각한 또래폭력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시형 외(199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40.9%에 달하며, 형사정책연구원(1996)의 조사결과에서는 놀림, 조롱, 욕설 등의 피해경험비율이 65.4%, 위협, 협박 등의 경험비율은 23.3%로 나타났다. 또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도 또래들을 놀려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57.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폭력을 손쉽게 촉발시킬 수 있고,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라 할 수 있는 '첫 단추'들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또래폭력이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바는 또래폭력의 메커니즘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적 구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라는 제3의 관련대상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관자들은 피해학생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하거나, 폭력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도 있다고 인식하기에 또래폭력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Batsche & Knoff, 1994; 이상균, 1999).

따라서 또래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직접적인 폭력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폭력상황의 제3자로서 관여하는 일반학생들의 인식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가해 및 피해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식과정을 다루어주는 것이 또래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목적아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폭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귀인양식을 살펴보려 한다. 즉,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그 주요한 책임과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귀인양식이 상이한 폭력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폭력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한 후 응답을 측정하는 삽화연구(vignette study)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provocation)이 있을 때, 가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또래간, 부모-자

녀간, 부모간 폭력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소재가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청소년들이 폭력상황에서 누구에게 폭력의 책임을 더 묻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공변이론의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등 3가지 차원에 기반해 구성된 폭력적 상황을 제시한 후 청소년들이 응답하는 책임소재에 대해 확인하려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또래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또래폭력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실천적인 원칙과 지침을 도출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또래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특별히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이 없는 경우, 즉 피해자가 폭력을 야기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력적 아동과 비폭력적 아동 모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Astor, 1994). 하지만 피해와 가해의 이분적 구도가 자명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날 경우, 예컨대 누군가 사소한 시비를 먼저 걸었거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폭력적 인 아동들은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dge, 1980). 즉, 폭력적 아동들은 별명부르기, 사회적 규율위반 등의 사소한 시비를 자신에 대한 위해(*harm*)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체적으로 징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정의실현이자 자기방어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폭력적 아동은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도덕성(*immorality*)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Piaget(1932)는 또래간의 신체적 징벌과 부모-자녀간의 신체적 징벌에 대해 아동들은 상이한 도덕적 추론을 한다고 주장한다(Astor, 1994 재인용). 즉,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성인의 권위나 규율에 따르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속죄적 징벌(*expiatory punishment*)이라 부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벌수행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동은 성장하면서 상호성(reciprocity)과 평등(equality)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또래간의 징벌은 상호적 징벌(reciprocal punishment)로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연령이 적은 아동은 또래간의 보복행위를 비난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호성과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에 또래간의 징벌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폭력적 아동이 또래간의 신체적 보복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사나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진 성인들이 자신들의 호소는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 온 아이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폭력적 아동들은 “어른들은 공정하지 않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Lockwood, 1997). 이 경우, 폭력적 아동들은 자신들 또한 희생자이며, 사회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불공정하고 적대적인 것이라 여길 것이다. 이에 폭력은 타인과의 상호성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아래 자신의 폭력행동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또래폭력의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폭력행위가 수용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때 폭력가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법이 정당화(justification)와 변명(excuse)이다. 정당화란 자신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피해학생이 폭력을 사용하게끔 이유를 제공하였기에,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책임은 부인하는 것이 변명인데,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들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폭력행위에 휩싸였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Lockwood(1997)에 따르면, 정당화와 변명 중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로 가해학생들이 내세우는 폭력사용의 이유 중 84%를 차지하고 있다.

2) 또래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귀인 양식

Shultz & Schleifer(1983)에 따르면 어떤 한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내리는 최종판단은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4개의 결정에 기반한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해를 입혔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책임이 행위당사자에게 있다고 확인된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행위당사자에 대해 비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정한다. 이때,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행위당사자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기반하여 행위당사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Keltikangas-Jarvine & Lindeman, 1996 재인용).

이렇듯 타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행위관찰자의 지각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때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지각하는 개인은 그 행위가 행위자의 내면적 속성, 즉 능력, 노력, 의도, 태도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가 처한 상황, 일의 성격, 난이도, 역할, 운수 등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Heider, 1958; 한규석, 1996 재인용). 이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는지 개인이 내리는 판단이 곧 귀인(attribution)이며, 이는 추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일을 경험하였을 경우에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이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귀인이론 중 가장 종합적인 이론은 Kelley(1973)가 제시한 공변이론이다. 공변원리란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정결과와 특정한 원인요소가 공존하는지를 살펴 귀인을 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공변이론에서 귀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정보의 유형이 있는데, 특이성(distinctiveness), 합의성(consensus), 일관성(consistency) 등이 그것이다.

특이성은 관찰자가 행위자의 행위가 특정한 자극에 대한 것인지, 보편적인 반응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합의성은 같은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행위자의 반응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일관성은 행위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지, 이번에만 보이는지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한규석, 1996).

공변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들은 많은데, 그 중 Anderson(1981)은 피험자들에게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등 3가지 차원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여 여러 개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판단은 공변이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3가지 차원에 대한 정보가 모두 높다고 볼 경우에는 상황 탓으로 돌리고, 모두 낮은 경우에는 행위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한규석, 1996 재인용).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하고만 싸웠고, 이번에만 싸웠으며, 다른 사람들도 원고와 잘 싸운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피험자들은 싸움의 책임을 피고

〈표 1〉 공변이론에 입각한 또래폭력상황의 귀인과정

차 원	상 황	귀 인
특이성	고 : 가해자는 피해자만 괴롭힘	피해자
	저 : 가해자는 거의 모든 사람을 괴롭힘	가해자
합의성	고 :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음	피해자
	저 :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와 거의 싸우지 않음	가해자
일관성	고 :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를 괴롭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저 : 가해자는 피해자를 처음 괴롭힘	

자료 : 한규석(1996)에서 수정 인용.

개인의 상황 탓, 즉 원고에게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또래폭력과 연관시켜 볼 때, 공변이론에 입각한 귀인과정은 〈표 1〉과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변이론에서 설명하는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의 차원에 기반하여 또래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제시한 후, 각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귀인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 및 귀인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연구방법은 삽화연구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한 중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한 뒤, 각 학교에서 1학년씩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1999년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해당학교에 조사원을 파견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78부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삽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판단과 귀인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폭력상황을 묘사한 삽화를 제시한 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4가지 삽화는 폭력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한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담고 있는데, Astor(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삽화를 기반으로 수정 작성하였다. 각각의 삽화는 또래간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야기상황, 부모-자녀 간의 폭력야기상황, 부모간의 폭력야기상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 영철이와 철수는 같이 놀고 있었다. 그러다 영철이와 철수는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철수를 보고, “야! 이 왕재수, 돼지 멍청아! 니네 아빠도 돼지 멍청이야!” 라고 놀려댔다. 그 말을 들은 철수는 영철이를 때렸고, 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또래간의 언어적 폭력야기 상황).

교실복도에서 영철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철수가 지나가자, 철수의 발을 걸고 는 등을 때렸다. 그러자 철수는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영철이와 싸우기 시작했다 (또래간의 신체적 폭력야기 상황).

영희는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걸레질, 방청소 등 집안 일을 돕고 난 뒤, 놀거나 TV를 보곤 했다. 어느 날 영희는 집안 일이 하기 싫어졌고, 엄마에게 “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제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기 싫어요!”라고 대들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영희를 때리고 말았다(자녀의 폭력야기에 따른 부모의 폭력).

철수 엄마는 하루종일 힘들게 일을 하다가 저녁 무렵 방안에 누워 쉬고 계셨다. 그때 아버지께서 퇴근하셔서 저녁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엄마는 “몰라요! 배고픈 당신이 알아서 챙겨 드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옆에 있던 물건을 엄마에게 던지시면서 화를 내셨고, 엄마는 울면서 부엌으로 뛰쳐나가셨다(부모간의 폭력야기상황).

다음의 3가지 상황은 공변이론에 입각하여 특이성, 합의성, 일치성과 관련된 요인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3가지 상황 모두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으로 누가 책

임을 저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케 한다. 첫 번째 삽화는 고향의성, 고향이성, 저일관성의 상황을, 두 번째 삽화는 고향의성, 저특이성, 저일관성을, 마지막 삽화는 저합의성, 저특이성, 저일관성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어제 명희는 경숙이와 말다툼을 한 후, 다른 아이들에게 경숙이와는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놀지 말라고 하면서 경숙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경숙이는 잘난 체하고 선생님께 잘 보이려 하는 아이로 찍혀 평소 반 아이들이 싫어한다. 명희는 평소 반 아이들과 싸운 적도 없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다. 경숙이와는 어제 처음 싸운 것이었다(상황 1).

어제 미정이는 경숙이와 말다툼을 한 후, 다른 아이들에게 경숙이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하면서 경숙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미정이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도 자주 하는 편이다. 아이들은 그런 미정이를 무서워하는 편이다. 경숙이는 잘난 체하고 선생님께 잘 보이려 하는 아이로 찍혀 평소 반 아이들이 싫어한다. 아이들과 싸운 적은 별로 없고, 미정이 하고는 어제 처음 싸웠다(상황 2).

어제 미정이는 윤희와 말다툼을 한 후, 다른 아이들에게 윤희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하면서 윤희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미정이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도 자주 하는 편이다. 아이들은 그런 미정이를 무서워하는 편이다. 윤희는 평소 반 아이들과 싸운 적도 없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다. 미정이와는 어제 처음 싸운 것이다(상황 3).

(2) 또래폭력관련 특성변수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Dodge, 1980; Olweus, 1993; 김준호, 1997; 이상균, 1999)에서 또래폭력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된 특성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또래폭력의 가해학생들은 또래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또래폭력의 가해자 특성과 관련이 높은 변수들이 폭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① 공격성

Buss & Perry(1992)의 공격성척도와 연진영(1992), 김준호(1997)가 사용하였던 공격성 척도를 수정 사용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충동·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점수를 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공격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② 비행경험

시험부정행위, 학교내 흡연 및 음주, 기물파손, 단순절도,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 과 관련한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혀 없다'에서 '5번 이상'에 이르는 5점 척도로써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의 경 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또래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응답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방관적, 허용적 태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Rigby & Slee(1993), 이상균(2000)이 사용한 또래폭력 에 대한 태도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부모님,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나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 괴롭힘을 당하는 아 이를 도와주지 못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가족갈등의 경험정도

가족성원간의 갈등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을 때린 적이 있다', '부모가 형제들을 때린 적이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적이 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출하신 적이 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70으로,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내 갈등경험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인구학적 변인

조사응답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 연령, 학년,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등을 조 사하였다.

4.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 특성 및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자료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90명으로 50.6%를, 여학생은 8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41명으로 23.0%, 2학년이 88명으로 49.5%, 3학년이 49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다.²⁾

조사대상 청소년의 69.1%가 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었고, 모의 경우 61.3%가 고졸 이상이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15세였으며, 부의 평균연령은 44.07세, 모의 평균연령은 40.85세였다.

(2) 또래폭력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또래폭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또래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허용선(tolerance)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들은 별명부르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77.7%에 해당되는 다수가 “장난으로 누구에게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물건을 숨기고 골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청소년 중 60.2%가 매우 허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별명부르거나 골려주기와 같은 행위를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59.1%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행위로 답했지만, 14.8%는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여러 번 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1.0%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헐박, 금품강취와 같은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83.6%의 청소년들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고, 타인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61.4%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금품강취, 때

2)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구성에서 2학년의 분포가 높다는 점이 결과해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학년별 귀인양식 및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결과의 해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학생	90	50.6
	여학생	88	49.4
공학여부	공 학	85	47.8
	비공학	93	52.2
학 년	1학년	41	23.0
	2학년	88	49.5
	3학년	49	27.5
부의 학력	국졸	19	10.7
	중졸	24	13.5
	고졸	86	48.3
	대졸 이상	37	20.8
	무응답	12	6.7
모의 학력	국졸	22	12.3
	중졸	35	19.7
	고졸	98	55.1
	대졸 이상	11	6.2
	무응답	12	6.7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학생 연령	14.15	.84	
부의 연령	44.07	3.55	
모의 연령	40.85	3.32	

〈표 3〉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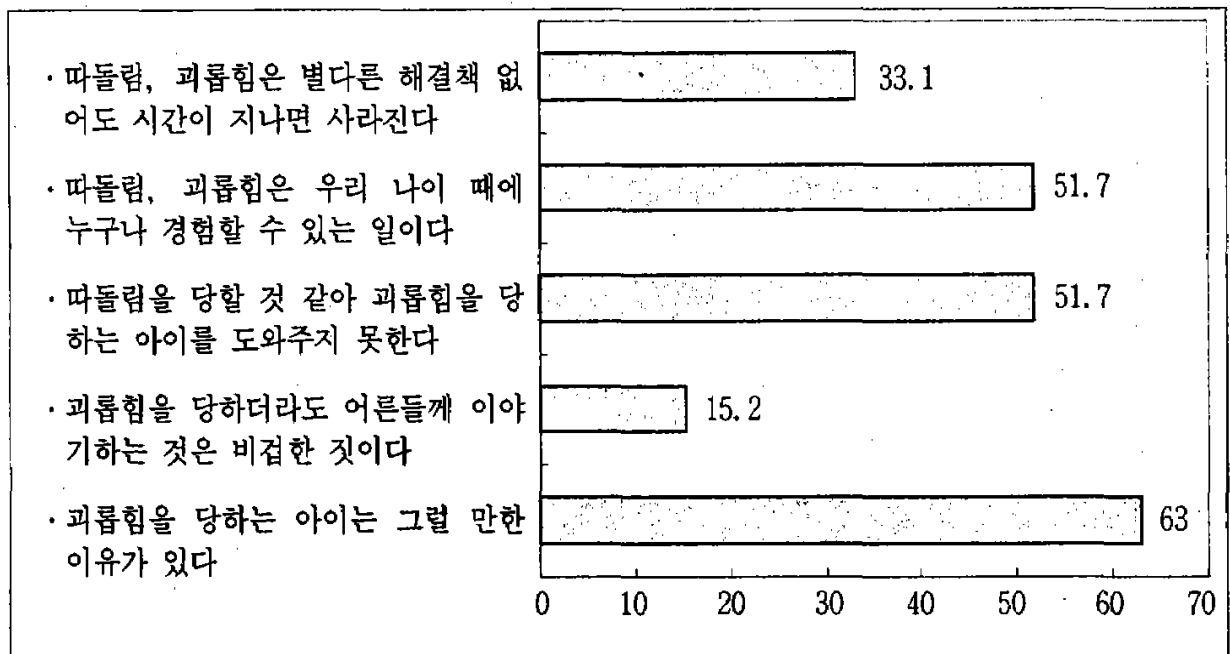
	장난으로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가능	싫어하는 아이에게 여러 번 가능	누구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됨	잘 모르겠다
싫어하는 별명 부르며 놀리기	136(77.7)	7(4.0)	18(10.3)	14(7.9)
물건숨기기, 끌려주기	106(60.2)	9(5.1)	38(21.6)	23(13.1)
집단따돌림	9(5.1)	26(14.8)	104(59.1)	37(21.0)
협박, 금품강취	5(2.8)	5(2.8)	147(83.6)	19(10.8)
때리기	25(14.2)	16(9.1)	108(61.4)	27(15.3)

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10.8%, 15.3%의 청소년들이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또래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청소년들이 명확한 허용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써 폭력을 사용할 수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의 사용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일정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폭력에 대한 이러한 불명확한 허용기준은 또래폭력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또래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또래괴롭힘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3.1%로 나타났고, 청소년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넘는 51.7%에 달하였다. 또한 자신이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해 피해학생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51.7%로 나왔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설사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1〉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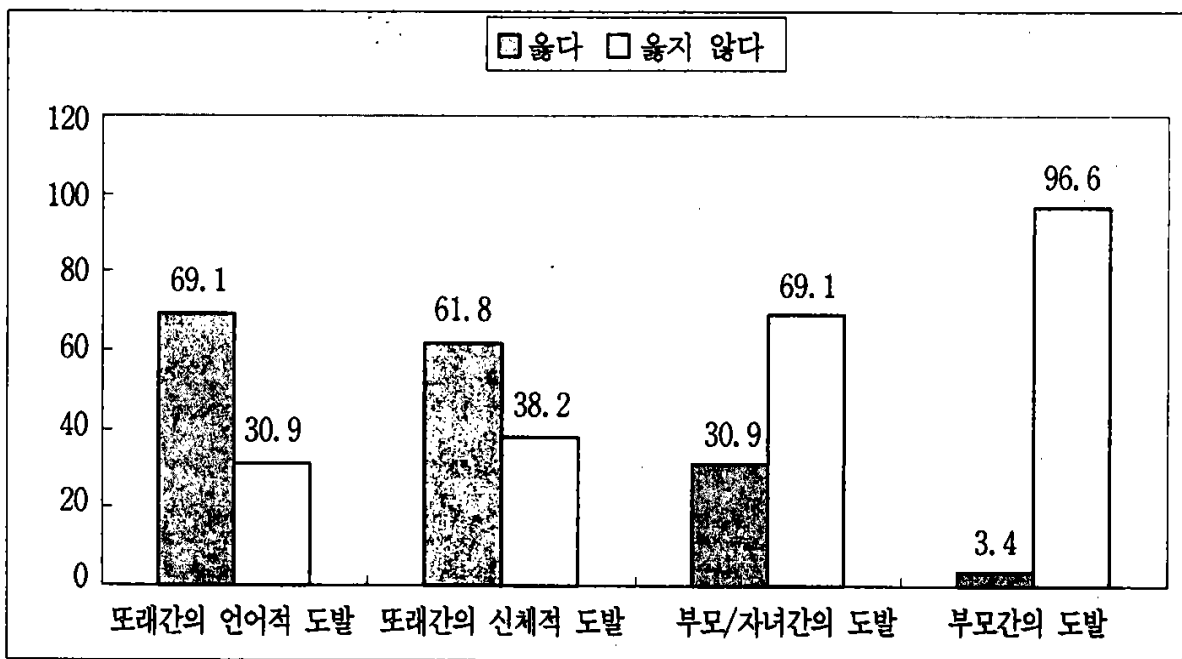
주: 총응답자수 - 178명

또한 63.0%의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또래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이 원인을 일정정도 제공하고 있기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희생자 비난하기’(blaming the victims)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 15.2%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 교사에게 알리는 것을 비겁하게 여기는 인식은 또래괴롭힘의 피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폭력 야기 상황 provocation)에 대한 도덕적 판단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제시된 4가지의 폭력야기상황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야기상황에서 또래간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69.1%와 61.8%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상호적 징벌’(reciprocal punishment) 즉, ‘혼날만 하니까 혼난다’는 식의 사고에 입각해 폭력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폭력야기상황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주: 총응답자수 - 1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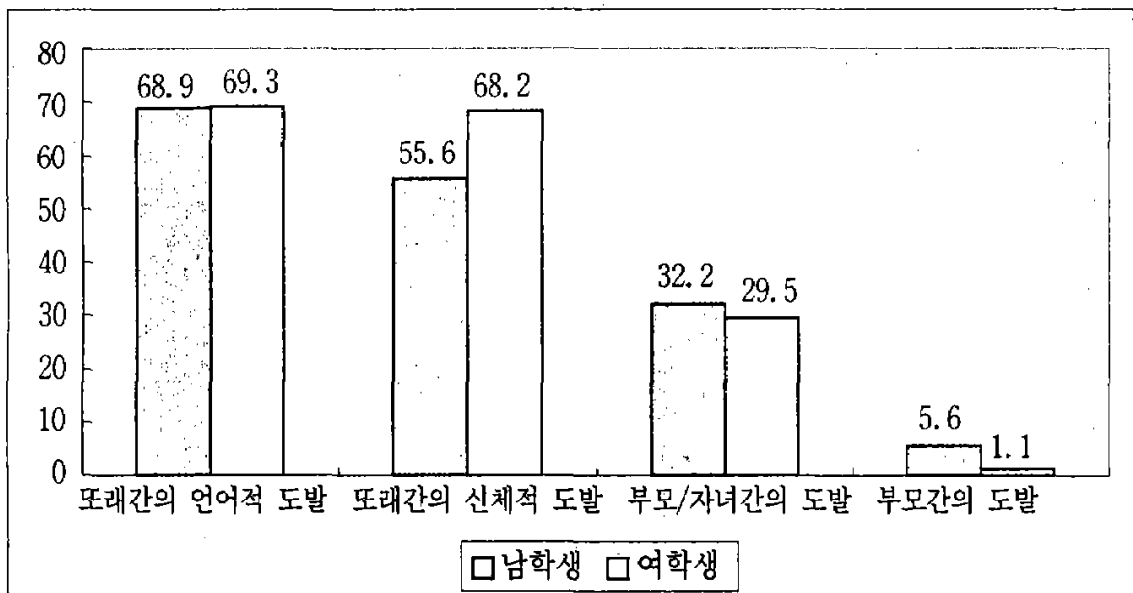
반면, 자녀가 폭력을 야기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모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30.3%만이 부모의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대답했다. 또한 부모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96.6%에 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Piaget(1932)가 주장한 '속죄적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성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도덕적 발달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속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편,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판단이 성,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우선 다음의 <그림 3>에서처럼 남녀별 판단의 결과는 거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의 경우에도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를 찾기란 힘들었다. 다만, 부모-자녀 간의 폭력상황과 관련하여 1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19.5%의 비율로 부모의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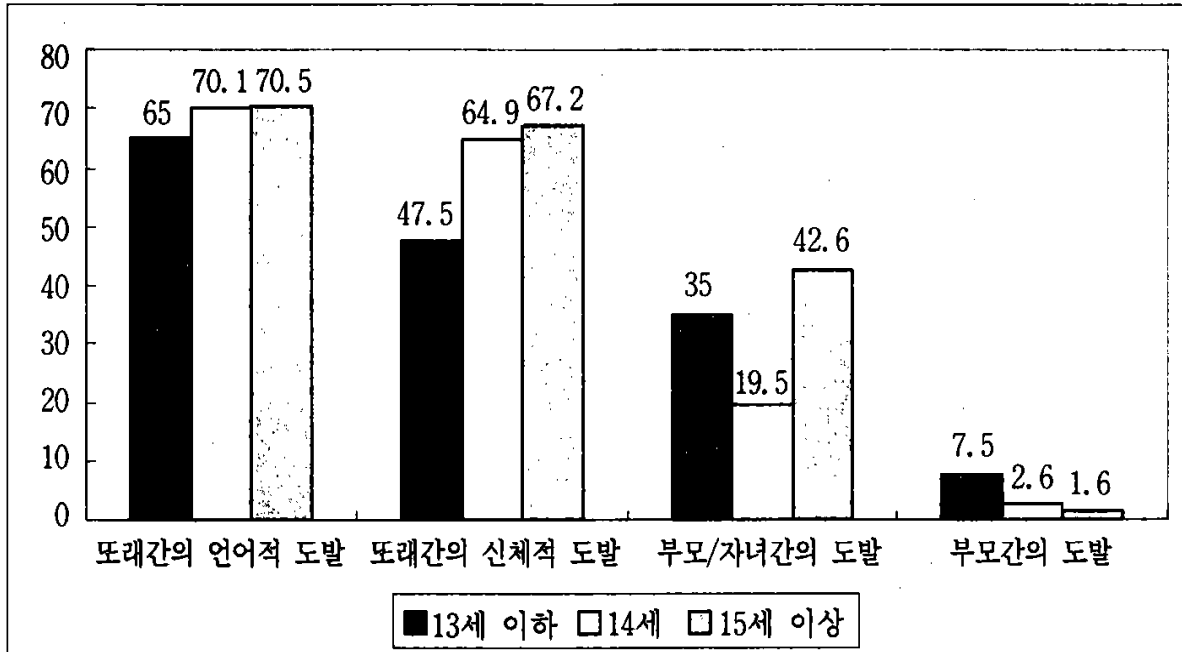
하지만 교차분석을 통해 성, 연령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할 때,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성과 연령에 상관없이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에서의 폭력행사에 대한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성별에 따른 폭력야기상황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주: 남학생 - 90명, 여학생 - 88명

〈그림 4〉 연령별 폭력야기상황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주 : 13세 이하 - 40명, 14세 - 77명, 15세 이상 - 61명

한편, 폭력상황에 대한 판단결과와 청소년들의 폭력관련 특성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통해 집단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간 폭력상황에서 가해자행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 공격성, 비행경험 등이었다. 즉, 폭력을 야기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가 높았고, 충동·공격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경험정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이고, 또래폭력에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행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인 경우,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의 가해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간의 폭력상황과 부모간의 폭력상황에서는 이러한 폭력관련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자녀간의 폭력상황에서 가족갈등 경험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폭력행위를 정

〈표 4〉 폭력관련 특성의 집단간 비교

또래간 언어적 폭력야기 (N1=123, N2=55)				또래간 신체적 폭력야기 (N1=110, N2=68)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df=176)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또래괴롭힘 방관	1	6.19(2.60)	2.55*	또래괴롭힘 방관	1	6.35(2.55)	3.25** (df=176)
	2	5.05(3.01)			2	5.00(2.93)	
공격성	1	12.89(5.72)	2.73**	공격성	1	13.60(5.49)	4.60** (df=176)
	2	10.35(5.76)			2	9.68(5.58)	
비행경험	1	2.76(3.80)	2.46*	비행경험	1	2.90(3.75)	2.92** (df=161.1)
	2	1.35(2.86)			2	1.38(3.12)	
가족갈등	1	0.99(1.35)	.13	가족갈등	1	1.05(1.39)	0.90 (df=176)
	2	0.96(1.33)			2	0.86(1.26)	
부모 - 자녀간 폭력야기 (N1=55, N2=123)				부모간 폭력야기 (N1=6, N2=172)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df=176)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df=176)
또래괴롭힘 방관	1	5.95(2.88)	0.35	또래괴롭힘 방관	1	7.67(3.56)	1.65
	2	5.79(2.73)			2	5.77(2.73)	
공격성	1	12.00(5.54)	-0.15	공격성	1	14.33(7.74)	0.95
	2	12.15(5.98)			2	12.02(5.77)	
비행경험	1	1.91(2.71)	-1.10	비행경험	1	2.50(3.56)	0.12
	2	2.50(3.09)			2	2.31(3.60)	
가족갈등	1	1.31(1.43)	2.19*	가족갈등	1	0.33(0.52)	-1.21
	2	0.83(1.28)			2	1.01(1.36)	

주 1 : N1 : 가해자행동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집단성원수, N2 : 가해자행동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집단성원수

주 2 : * p < .05, ** p < .01

당하다고 판단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성원간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의 학습과 연결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족 내 갈등의 경험은 폭력의 행사가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족내 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야기한 상황의 비도덕성, 즉 자녀의 폭력야기 행위에 초점을

두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보복적 폭력의 비도덕성, 즉 부모의 폭력행위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청소년들은 또래간의 폭력과 가족성원간 폭력에 대해 상이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또래폭력관련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별 차이 없이 부모의 폭력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간의 관계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 가족성원간에는 분명한 위계구조가 설정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여겨진다. 즉,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녀나 모의 폭력야기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강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 또는 부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폭력의 상황에 따른 귀인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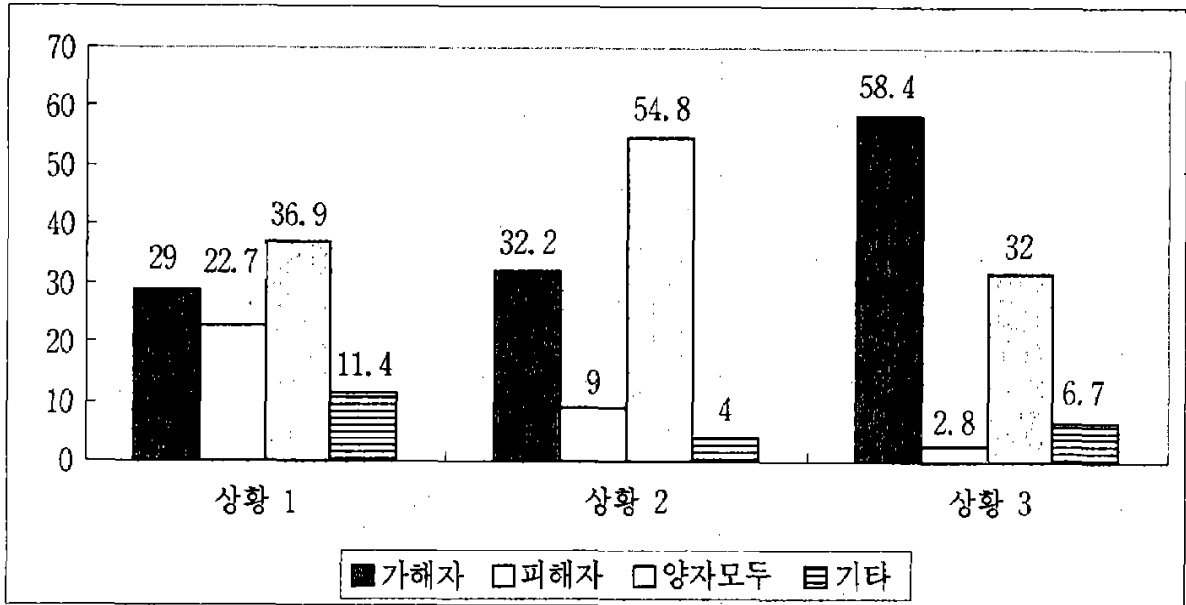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귀인양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등 3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구성된 폭력상황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상황 1은, 피해학생을 다른 급우들도 싫어하는 고합의성,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만을 괴롭히는 고특이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갈등이 처음 있게 된 저일관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은 잘못이 있는 대상으로 29.0%의 청소년들이 가해학생을, 22.7%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을 지목하였고, 36.9%의 청소년들은 양자 모두에게 잘못을 돌렸다.

상황 2는 피해학생을 다른 급우들도 싫어하는 고합의성,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괴롭히는 저특이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갈등이 처음 있게 된 저일관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32.2%의 청소년들이 가해학생을, 9.0%의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을, 54.8%의 청소년들은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황 3은 피해학생과 다른 급우들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저합의성,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괴롭히는 저특이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갈등이 처음 있게 된 저일관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58.4%의 청소년들이 가해학생에게 잘못이 많다고 응답했고, 피해학생에게 잘못을 돌린 청소년은

〈그림 5〉 각 상황에 따른 귀인대상의 분포



주 : 총 응답자수 - 178명

2.8%에 불과했다. 그리고 32.0%의 청소년들이 양자 모두 잘못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는, 합의성과 특이성 차원이 높을 경우(상황 1) 가해자의 외적 귀인, 즉 피해자를 포함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고, 합의성과 특이성 차원이 낮은 경우(상황 3) 가해자의 내적 귀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는 공변원리와 일치한다. 반면 합의성과 특이성의 정보가 서로 상반된 수준으로 제공될 경우(상황 2)는 적합한 귀인대상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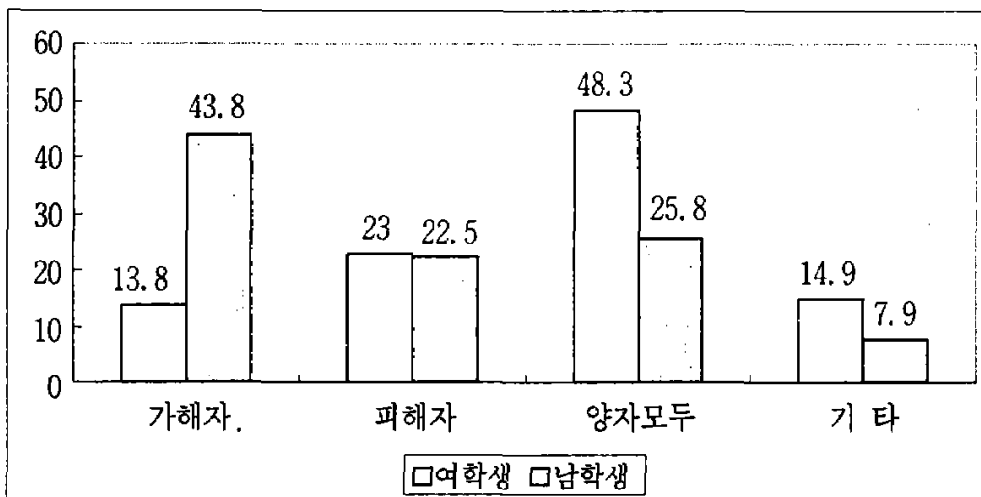
한편, 3가지 상황 모두에서 양자 모두에게 잘못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30% 이상이 나온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관점이 청소년들에게 일정정도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또래폭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상황에 관계없이 또래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망이 부족하게 되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또래폭력과 관련하여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을 부여하기 보다는 폭력에 관계된 양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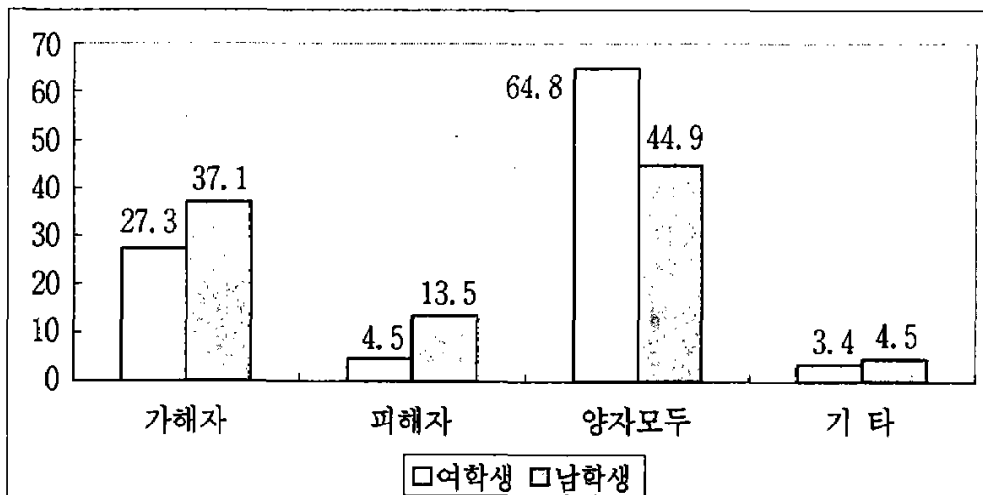
우,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관련 당사자중 누군가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처벌적 전략이 아닌 양자간의 화해와 공동책임이라는 협상적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귀인양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황 1의 경우 가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비율이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양자 모두에게 잘못을 돌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 2의 경우에서도 양자 모두에게 잘못을 돌리는 비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황 3의 경우에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귀인대상은 찾기 힘들었다. 이는 제시된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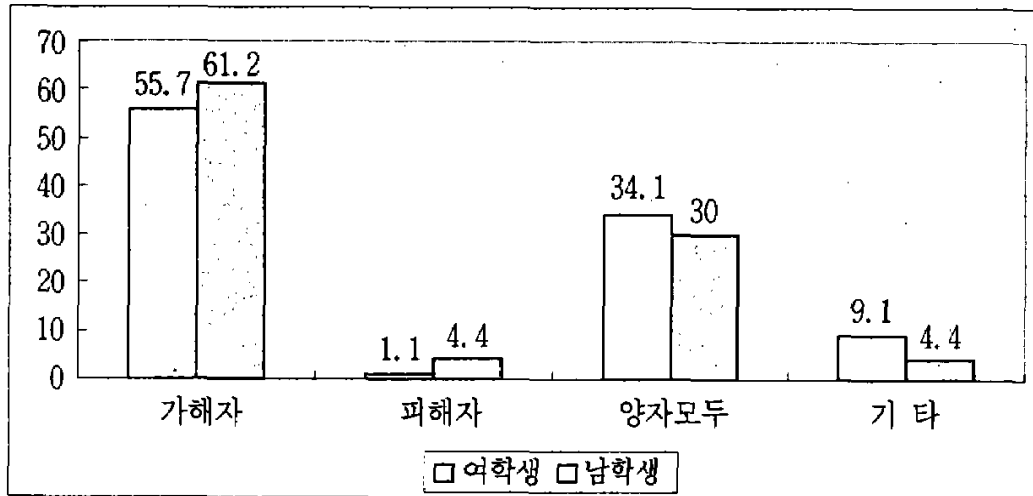
〈그림 6〉 남녀별 귀인대상의 분포



상황 1(남학생 : 89명, 여학생 : 87명)



상황 2(남학생 : 89명, 여학생 : 88명)



상황 3(남학생 : 90명, 여학생 : 88명)

보다 극명하게 책임소재를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자청소년들은 명백한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분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양쪽의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특정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양자간의 화해를 통한 갈등해결을 보다 선호한다는 Gilligan(1982)의 설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귀인대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령별로 귀인대상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이는 결과를 찾기 힘들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판단능력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중학생이라는 동질적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시켜 연령에 따른 귀인대상의 분포가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귀인양식의 확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받아들일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상황 3과 관련하여 귀인대상으로 가해학생을 지목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피해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움직임이 드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공변이론이 형식논리에 따른 판단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

〈표 5〉 연령별 귀인대상의 분포 (%)

	상 황 1			상 황 2			상 황 3		
	13세 이하	14세	15세 이상	13세 이하	14세	15세 이상	13세 이하	14세	15세 이상
가해자	8(20.0)	28(36.9)	15(26.7)	13(32.5)	27(35.5)	17(27.9)	24(60.0)	44(57.1)	36(59.0)
피해자	10(25.0)	14(18.4)	16(25.0)	2(5.0)	9(11.8)	5(8.2)	0(0.0)	4(5.2)	1(1.6)
양자모두	17(42.5)	26(34.2)	22(36.6)	24(60.0)	39(51.4)	34(55.7)	13(32.5)	25(32.5)	19(31.1)
기 타	5(12.5)	8(10.5)	7(11.7)	1(2.5)	1(1.3)	5(8.2)	3(7.5)	4(5.2)	5(8.2)
총 계	40(100)	76(100)	60(100)	40(100)	76(100)	61(100)	40(100)	77(100)	61(100)

든 일일 수 있다. 그렇기에 상황에 대한 논리적,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현실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왜곡된 현실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예방교육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귀인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폭력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폭력발생 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으로만 구분하여 개입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그보다는 가해, 피해청소년 모두를 포함시킨 개입을 통해 폭력이 야기된 상황과 폭력행위 모두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또래폭력에 대한 판단과 청소년들의 폭력관련 특성들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폭력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폭력행사의 책임이 있다는 정당화의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해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될 경우 다시 상호적 징벌을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폭력행위의 결과에 근거해 책임소재를 묻기보다는 폭력과 관련된 맥락적 상황에 의거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해청소년들의 자기정당화와 함께 폭력의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다른 청소년들도 또래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또래폭력의 발생시, 폭력의 제3자로서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가해청소년의 잘못을 묻기보다는 방관하고, 묵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에 대한 개입대상은 관련당사자만이 아닌 일반학생 모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할 때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수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 학급단위의 갈등해결프로그램(*conflict resolution program*)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들에게만 행해지는 개입프로그램은 사후처방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그 보다는 폭력의 '첫 단추'(*opening move*)가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또래간에 발생하는 폭력의 '첫 단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중재자(*mediator*), 감시자(*marker*)의 역할을 부여하고, '모둠'과 같은 소모임활동의 강화를 통해 경쟁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의 유용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자청소년들과 남자청소년들간에 보인 귀인양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에 도전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Gilligan(1982)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정향성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상처와 죄책감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높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은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인간의 협상전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협상전략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한 학급, 학교단위의 갈등해결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호적 처벌과 폭력적 보복의 수용이라는 왜곡된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갈등상황을 타협과

양보로 풀어가는 방법을 경험해봄으로써,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간의 보복적 처벌을 금지하는 학교내 규칙을 수립하고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학급단위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적 정의(*justice*)가 가져올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에게 행동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이 도덕적 판단능력의 부재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폭력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화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격적 성향을 감소시키고, 충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보기 힘들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도덕적 판단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덕성 교육이 행동수정방법과 결합되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수정기법과 도덕성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ART(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Goldstein, Gibbs, & Glick, 1998).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의 대표성문제와 함께 제시된 상황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폭력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맥락적 요소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게 했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못해, 청소년의 또래폭력 귀인양식과 관련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연구에서 보충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 김준호.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와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0. "청소년폭력과 학교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3호. pp.

223~249.

이시형 · 이세용 · 정현희 · 김형주. 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9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규석. 1996.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Anderson, D. D. 1981. "Defendant' past criminal record: Effects of attributional information and judicial instructions on verdict-related judgements." Unpublished Ph. 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Astor, R. A. 1994.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Family and Peer Violence: The Role of Provocation and Retribution." *Child Development*. 65. pp.1054~1067.

Batsche, G. M. & H. M. Knoff.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 *School Psychological Review*. 23(2). pp.165~174.

Buss, A. & M. Perry.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pp.452~459.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pp.162~172.

Gilligan, K.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Goldstein, A. P., J. C. Gibbs, & B. Glick. 1998.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for Aggressive Youth*. Research Press.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 Y. : John Wiley.

Kelley, H. H. 1973.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s*. 28. pp. 107~128.

Keltikangas-Jarvine, L. & M. Lindeman. 1996. "Evaluation of Theft, Lying, and Fight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6(4). pp.467~483.

Lockwood, D. 1997. *Violence amo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in Brief.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Rigby, K. & P. Slee. 1993.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pp. 615~627.

Shultz, T. R. & M. Schleifer. 1983. "Toward a refinement of attribution concepts." in J. Jaspars, F. D. Finchamn, & M. Hewstone(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London: Academic Press.

Adolescents' Moral Reasoning & Attribution about Peer Violence

Lee, Sang-G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identify adolescents' moral reasoning and attribution about peer violence, vignette study was conducted. 178 subjects selected from 4 inner city schools were asked to evaluate provoked violent situations. 4 situations depicting the provocation/retribution condition and 3 short vignettes depicting peer violence were presented, and adolescents were asked to judge the violent behavior and the morality of story characters.

Analyses revealed that many adolescents focused more on the immorality of the provocation and perceived "hitting back" as a form of reciprocal justice. And a number of adolescents attributed the responsibility to the both of prosecutors and victims with situations which have obscure informations to judge the violent behaviors. In addition, adolescents having more violent characteristic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violence to the victims than non-violent adolescents.

Several sugges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or class-bas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to intervene in a dispute between peers. Second, it is necessary for comprehensive program such as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including moral education as well as behavior modification to resolve peer violence.